



농촌 들녘 청보리밭이 야외 전시장으로

에월 광지리 대진농원에
김평식 작가의 대형 조각
‘변-은하’ 등 총 4점 설치
사계절 따라 다른 빛깔들

청보리 이삭 일렁이는 농촌 들녘이
야외 조각 전시장으로 변신했다. 제
주시 에월읍 광지리 1.3ha 규모의 대
진농원(광지리 2407-1)에 대형 설치
작품 4점이 상설 전시되고 있다.

이곳에 전시된 작품은 2018년 11
월 제주시 도심 신산공원에서 진행
되었던 제주 출신 김평식 작가의 개
인전 출품작이다. 제7회 제주도미술
대전 우수상 수상 경력이 있는 김 작
가는 당시 ‘스페이스’란 주제 아래
30여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첫 개
인전을 열었다. 개인전에서 김 작가
는 삼성혈 국수거리 인근 신산공원
동북쪽 잔디마당에 철과 스테인레스
를 주재료로 자연과 어울리는 7점의
‘변(邊)’ 연작을 선보였다.

김 작가의 조각품이 도심을 떠난
건 그해 12월 이경훈 대진농원 대표
가 흔쾌히 5점을 구입하면서다. 김 작



야외 전시장으로 바뀐 청보리밭. 제주시 에월읍 광지리 대진농원에 김평식 작가의 대형 조각품이 설치되어 있다.

가가 모교(제주중앙고)에 기증한 2점
을 제외한 전시작품 다수를 새로운
분위기 속에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대진농원 보리밭 한가운데
놓인 ‘변-은하’ 등 설치작품은 사계
절 다른 표정을 보여준다. 돌담, 오
름 등 주변 경관과 계절에 맞춰 피고
지는 농작물에 따라 작품의 결이 달
라지는 ‘대지의 미술’이 펼쳐지는
셈이다. 근래에는 붉은 빛 조각이 연
꽃빛 보리밭과 대조를 이루며 한층
강렬한 인상을 그려낸다. 보리가 황

금색으로 익어갈 무렵엔 작품의 배
경이 또 바뀔 것이다.

이경훈 대표는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오고가며 일상 속에
서 예술작품을 즐기고 제주도민이나
관광객들도 색다르게 작품을 만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설치작품이
알려지고 방문객이 늘어난다면 이를
계기로 지역에서도 새로운 수익 창
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이 시절을 견디는 그대에게 사랑을

담소창작스튜디오 작가
14명 공동프로젝트 진행

코로나19로 지친 우리네 마음을 사
랑의 ‘하트(♥)’로 위로하는 전시가
있다. 제주시 은남4길에 있는 담소
미술창작스튜디오 7층 갤러리701에
서 펼쳐지고 있는 ‘헬로우! 22 공동
프로젝트’다.

지난 1일 시작된 이번 전시엔 ‘하
트(heart)’란 제목 아래 담소미술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 14명이 참
여했다. 강나루(조각 전공) 김미지
(서양화) 김순관(서양화) 김예란
(서양화) 김효은(디자인) 박금옥
(조각) 부상철(서양화) 서성봉(조
각) 소현경(디자인) 소희진(도양
화) 예미킴(토목공학) 오기영(동양
화) 이지현(서양화) 정미숙(동양
화) 작가가 그들이다.

이들은 1인당 20여점씩 출품해 총

280여개 작품으로 하트 모양의 작품
을 빚어냈다. 작가마다 기존의 작업
방식에서 벗어나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사회의 고통과 어려움을 더불
어 고민하지는 취지로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각각의 작품들은 사각의
구조물 안에 낚시줄로 매달려 있는
데, 멀리서 보면 하트 모양이 눈에
들어온다. 이를 통해 따스한 사랑의
기운으로 우리 사회에 희망의 메시
지를 전하려 한다.

담소미술창작스튜디오는 2018년
이방훈 기업가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예술가들을 위해 조성한 작업실이
다. 15개의 스튜디오와 1개의 전시
실로 구성됐다. 현재 미술교사로 퇴
임한 김순관 작가가 스튜디오 운영
을 맡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이달 31일까지 이어
진다. 관람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
터 오후 6시까지다. 문의 010-3444-
1444.

진선희기자

종이 인간으로 빚어낸 ‘그들의 서사’

이유미 작가 인체 조각전
종이죽 이용 다중적 의미



이유미의 ‘기다리다’ (2019).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이인지, 어른인
지 선했 분간하기 어려운 얼굴이 보
인다. 가느다란 인체의 그것들중에는
얼굴이 두 개인 형상도 있다. 이유미
개인전 ‘그들의 서사(敍事)’에 펼쳐
진 ‘종이조각’들이 그렇다.

이유미 작가는 이화여대와 동대학
원 조소과를 졸업했고 미국 시카고
아트인스티튜트에서 공부했다. 2012
년 서귀포시 이종섭미술관창작스투
디오 입주 작가로 제주와 인연을 맺
었고 지금은 제주시 구좌읍에 정착
해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시 중앙로 KEB하나은행 지
하1층 돌담갤러리에서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그의 개인전에는 2018년 이
후 제작된 신작이 나왔다. 종이죽으
로 인체조각을 해온 이 작가는 이번
에도 종이를 주재료로 인간의 고통
과 슬픔을 시적으로 표현한 작품들
을 선보이고 있다.

그의 작업에 참여한 종이는 이 작

가의 아버지가 붓글씨를 쓰던 화선
지에서 비롯됐다. 먹물이 배인 한지
를 물에 풀어 회색의 종이죽으로 만
든 뒤 거기에 아교를 혼합해 형상을
빚는다. 철사로 뼈대를 세운 다음에
종이죽을 한 점 한 점 붙여가며 인간
의 모습을 완성시켰다.

전시작 ‘기다리다’는 두 얼굴의
‘종이 인간’이다. 샴쌍둥이에서 빌
려온 그같은 형상은 이율배반적인
우리네 모습이면서 고뇌에 찬 인간,
혹은 천수전안의 관음상처럼 다중적
의미를 지닌다. ‘그들의 서사’ 연작
중 하나인 ‘나의 왼쪽’은 머리와 팔,
다리 일부가 잘려나갔다. 한쪽을 잃
어버린 몸은 감정의 절제이자 다양
성의 거세이면서 뿌리를 잊고 싶은
마음을 은유한다. 작가 개인의 사적
인 사연은 차츰 제주4·3과 같은 역
사적 사건으로 확장되어 간다.

전시는 이달 20일까지. 문의
064)757-2171.

진선희기자

지붕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나눔핏이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나눔핏은 단독주택 옥상부터 축사, 창고 및 상업시설의 지붕 위에 쉽고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태양광 사업 맞춤형 브랜드입니다.

10

10년 이상 유지보수

48

48시간 이내 AS 처리

20

20년 후 폐기물 부담수지

2020. 04 3년 연속 제주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

2019. 06 고용우수기업 선정

한화큐셀 (Q-CELL) 제주도 큐파트너 협력기업

2019. 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 02 미국 Pingo Solar 와 기술 협약 체결

* 나눔에너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주)나눔 에너지 |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스마트빌딩 211호

시공문의 | TEL.064-745-0420 FAX.070-8812-0420